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시험(2024. 6. 1.시행)

「민법(총칙)」 총평

- 이패스행정사 이동건-

<총평>

작년보다 더 평범하게 출제되었다. 공부를 조금 많이 한 수험생은 100점도 맞을 수 있다. 함정문제라든지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거의 없고 답이 바로 보이는 수준이다. 간혹 약간 어려운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모르더라도 답을 찾는다는 어려움이 없다.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편하게 응시했으리라고 본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문제 난이도 평가>

1. 하. 사정변경의 원칙의 기본 내용을 출제하였다. 틀려서는 안된다.
2. 하. ㄱ이 틀리고 ㄴ이 맞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므로 ㄷ판례를 모르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으므로 하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3. 하. 의사표시는 대부분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4. 하. 특정후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5. 하. 감사의 기본적인 내용. 지문의 뉘앙스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다.
6. 하. 이사의 사임에 대한 기본적인 판례.
7. 하. ㄱ, ㄴ은 법인의 기본내용이며 ㄷ은 중요판례이다.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8. 하. 종물의 기본 내용.
9. 하. 반사회질서 기본판례들이다.
10. 하. 불공정 법률행위의 기본 내용.
11. 하. 비진의표시의 기본내용과 판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12. 중. 사실은 하로 분류할 수 있다. 108조의 제3자 여부에서 ㄴ, ㄷ은 중요한 판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ㄱ의 계약인수의 판례를 모르는 이는 어렵게 느낄 수 있다.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3. 하. 착오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가 정답으로 제시되었다.
14. 하. 까다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상식적으로 5번이 정답인 것을 모를 수 없다.
16. 하. 116조의 기본 내용. 평소에 많이 연습하는 내용이다. 틀려서는 안된다.
17. 하. 5번 지문은 어렵지만 그걸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으므로 하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18. 하. 법정대리인의 취소의 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조문을 묻는 문제이다.
19. 하. 조건과 기한의 가장 기본적인 조문들이다. 틀려서는 안된다.
20. 하. 역시 조건과 기한의 가장 기본적인 조문들이다. 틀려서는 안된다.
21. 중 혹은 하. 정년 판례를 모르는 이는 당혹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지문들이 도저히 답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모르는 판례가 정답이므로 중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22. 하. 1년 소멸시효 기간을 외우지 않아도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3. 하. 기본 조문을 출제하였다.
24. 하. 중요판례를 정답으로 제시하였다.
25. 중 혹은 하. 정답으로 제시한 판례는 중요판례는 아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문들이 도저히 정답이 될 수 없어서 난이도는 하가 맞지만 모르는 판례가 정답이므로 중으로 분류한다.